

온라인 무용비평의 의미와 가능성 연구

전 지 은*

I. 서론	IV. 결론 및 제언
II. 온라인 매체와 무용비평	참고문헌
III. 온라인 무용비평의 현황과 가능성 진단	Abstract

I. 서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객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비평 활동은 예술의 생산과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으며, 이 같은 현상은 무용예술과 무용비평의 발달에 있어서도 예전에 비해 훨씬 비대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무용비평은 사회가 다양화되어짐에 따라 그 기능도 다기능화 되고 있으며, 무용예술의 진보와 발맞추어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여 왔다. 또한 다양한 매체의 발달에 따라 그 접근성은 점점 용이해지고 있다. 무용비평은 특히 전문가에 의해 쓰여 진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특성을 지녀왔으며, 공연에 대한 즐거리와 의미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로서 매체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동안 무용비평은 무용예술과 전문지라는 특수성 아래 제한된 독자층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온라인의 활용이 다기능화 됨에 따라 무용에 관련된 정보와 무용비평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용이해졌다. 또한 무용비평에 관심 있는 블로거들과 무용비평가들의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문지가 아닌 온라인 매체에서도 무용비평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온라인 매체의 활용은 전문지에서 활동하는 비평가들에 비해 비제한적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매체의 다변화에 따른 이 같은 양상은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매체의 폭넓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다양한 관객에게 무용공연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비평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용비평의 새로운 매체의 활용과 기고범위의 확대는 전문 무용인뿐만 아니라 일반관객의 수용이라는 대중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매체의 다양성과 경향에 따라 무용전문지 또한 온라인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 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과 박사과정, lily8219@hanmail.net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본 연구자는 매체의 발전에 따른 무용비평 전문지의 온라인화 현황과 비전문인들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아마추어 무용비평 웹진 및 블로그의 현황비교를 통해 온라인 매체가 대중적 매체로서 갖는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현황을 통해 온라인 매체의 다양한 특성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전문지라는 잡지형식으로 한정되어온 무용비평의 새로운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의미를 연구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매체와 비평의 관계에 관한 본 연구를 시점으로 이 같은 연구가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무용비평의 발전에 기여하고, 앞으로 무용비평 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되고자 하는데 그 필요성을 둔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매체는 다양한 정보의 공급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보의 생산과 공급은 정보의 교류 외에도 다양한 언론매체의 발달과 새로운 문화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다양한 매체의 발달과 콘텐츠의 확산은 정보의 생산과 매체의 폭넓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매체는 언론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언론외적인 분야의 콘텐츠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사회와 문화의 발달,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현대인의 삶에서 오락, 여가, 교양, 시사 등 다양한 대중문화와 정보의 통로로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타 예술 장르에 비해 무용예술은 대중적인 측면이나 관객의 접근성과 소통 면에서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형태가 유지되어왔다. 무용예술이 순수예술로서 갖는 선입견과 한계는 새로운 레퍼토리의 부재이기 이전에 매체의 소극적인 활용과 관객과의 소통의 결핍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레퍼토리에 대한 창작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영화와 뮤지컬 산업은 대중문화로써 자리매김 하는데 충분한 대중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들의 대중성을 온전히 레퍼토리의 다양성 때문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작품의 생산을 통해 그에 따른 작품의 성패와 평가가 관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미 이러한 간접적 구조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 하다. 무엇보다 이 같은 여가문화를 선택할 때 관객의 온라인 의존율이 높아짐에 따라 작품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온라인 비평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매체와 비평의 관계와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기존매체가 갖는 정시성과 일과성을 보완가능하게 하였으며, 비평의 역할이 평가와 정보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무용비평의 온라인 매체의 활용은 무용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매체의 특성상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때 키워드 중심으로 우선 선별되고, 그 정보를 가장 먼저 취하고 활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전문성만이 작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선행연구로 이명선(2006)¹⁾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비평을 창출하고, 이로 인해 네티즌 비평이 전문가 비평 못지않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얻음으로써 영화관객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같은 유형의 논문으로 정성진(2007)은 뮤지컬 중수용자는 네티즌의 비평이 관람의도에 더 영향을 미치고 뮤지컬 중수용자는 전문가의 비평이 관람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전문가 못지않게 비전문가에 해당

1) 이명선(2006), 온라인비평이 영화관람 의도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7.

하는 네티즌 비평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뮤지컬 산업의 특성상 경수용자의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비전문가라 할 수 있는 네티즌의 공연비평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더욱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음²⁾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 논문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매체와 비평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으며, 새로운 매체를 통한 비평의 활용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대부분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영화와 뮤지컬의 비평연구로서 무용분야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연구조차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비평에 관련해서는 언론분야에서 다룬 단 한 건의 논문을 찾을 수 있었는데, 장승현(2012)³⁾은 “웹상에서 수용자들의 담론의 다양성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진단하여 무용예술의 수용비평문이 갖는 의미들을 재인식하여 무용예술의 담론이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고, 담론생산의 장으로써 웹진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는 무용비평과 온라인 매체의 특성이 이미 새로운 문화형태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같은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른 비평에 관한 연구가 타 분야의 연구의 이전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황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월간 춤’, ‘월간 객석’, ‘공연과 리뷰’, ‘춤추는 거미’, ‘뉴 스테이지’ 총 5개 항목으로, 매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전문지와 아마추어 웹진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분류는 콘텐츠 생산자의 사회적인 공인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분석대상의 선정기준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간 춤, 월간 객석, 공연과 리뷰는 그동안 전문 비평가들의 꾸준한 활동으로 연재되고, 무용전문지로서 오랜 역사를 지녀왔다는 점에서 전문지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춤과 사람들, 월간 몸, 무용과 오페라 등이 있으나 웹사이트 부재 등의 이유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전문지의 온라인화를 시도한 몇 안 되는 전문지로서 공통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이들 세 개 매거진은 계간지와 월간지로 각각 그 성격이 다르나 온라인 매체가 ‘정시성’과 ‘일과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임을 감안할 때, 기존 매체의 성격을 고려하기 보다는 온라인 매체의 특수성과 기존 매체의 전문성만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셋째, 온라인상의 아마추어 비평과 전문가 비평의 현황비교는 기존 비평 매체가 갖는 전문성이라는 특수성과 온라인 매체의 개방성이라는 특수성의 비교를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현황 파악의 목적보다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무용비평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논의와 제언을 위한 자료조사임을 밝힌다.

넷째, 춤추는 거미, 뉴 스테이지는 아마추어 무용전문 웹진으로서 전문지와 비교하여 그에 준하는 전문성을 토대로 아마추어 비평가에게 무용비평 글쓰기의 지면을 제공하고, 소통을 통해 담론 생산의 장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온라인 무용비평 및 학문적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서 그 목적이 뚜렷하고,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웹사이트에 비해 전문화된 집단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섯째, 무용전문웹진은 웹진과 웹사이트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어 현황조사를 위한 접근성이나 소

2) 정성진(2007), 온라인비평이 뮤지컬 관람객의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51-52.

3) 장승현(2012), 수용자 비평 이론을 통해 본 무용전문 웹진 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p.112.

통과 같은 기능적인 측면을 다루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웹사이트 조사와 함께 인터뷰를 병행하고 인터뷰내용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II. 온라인 매체와 무용비평

1. 무용비평의 개념

무용비평의 개념을 알아보기에 앞서 무용의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면, 무용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의 신체를 창조적으로 활용한 결과 나타난 문화적 양식으로 이러한 무용양식은 인간의 움직임의 구조화된 체계로 형식화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나 무용 양식들은 구조화된 내용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이기도 하며 정교한 미학적 체계의 부분이기도 하다.⁴⁾

이근수(2000)의 견해에 따르면, 무용이란 예술작품은 다른 장르와 달리 춤 외에 음악, 미술, 문학과 의상, 조명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됨으로써 완성된다. 따라서 무용작품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춤 동작의 평가를 넘어 작품에 포함된 다른 모든 예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 한다⁵⁾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무용예술은 비평가가 이들 요소를 통합하는 관점을 가지고 전문적이고 예술적인 관점에서 무용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폴 헤르나디는 비평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본래 라틴어인 ‘Criticus’와 그리스어 ‘Krinein’에서 유래된 것으로 분할, 구별, 판단, 평가 등을 의미하는데 처음의 분할과 구별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의미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주로 쓰이는 비평을 뜻하는 용어 중 ‘criticism’ ‘Kritik’, ‘critique’ 일반적으로 쓰는 ‘criticism’은 그리스어의 ‘krinrin’, 분할하다 ‘krion’, 판단하다 ‘krites’ 판사, 배심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critic과 행위를 가리키는 critique를 영어로 구별할 수 없는에서 생겨나는 동음이의어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⁶⁾

즉, 비평의 의미는 어떠한 대상이나 작품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미에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또한 ‘분할하다’와 같은 의미는 비평이 작품의 호, 불호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작품을 재단하여 평가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비평과 평론의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 어떠한 하나의 원리 또는 사실, 명제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 검토는 평가에 관련되는 것이며, 인간의 행위 또는 작품에 대한 판정, 비평은 사물의 선악과 시비, 미추 등을 평가하여 논하는 일, 남의 결점을 들추어 좋지 않게 말함을 뜻한다고 기

4) 드리트 윌리엄스(2000), 『인류학과 인간의 움직임: 무용연구(ANTHROPOLOGY AND HUMAN MOVEMENT The Study of Dances)』, 신상미(역)(서울: 대한미디어, 2002), p.92.

5) 이근수(2000), 평론가여, 그대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무용평론에 대한 견해, 『문화예술』, (2000년 4월호, 통권 249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144.

6) 폴 헤르나디(1984), 『비평이란 무엇인가』, 최상규(역)(정문사, 1998), pp.354-355.

술하고 있다. 또한 평론을 사물의 가치, 선과 악을 비평하여 논함, 또는 글이라 칭하고 있으며 비평가는 인물, 행위 특히 학설, 작품 등의 가치, 능력, 정당성, 타당성 등을 전문으로 평가, 검토하는 사람을 평론가로 지칭하고 있다.⁷⁾

즉 비평은 사물이나 대상의 가치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이루어 내는 것으로 대상의 개선점을 시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비평가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예술비평의 의미는 예술가와 일반 대중을 연결하는 매개적 기능이며, 양자(兩者)에 대해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실질적이고 직접적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예술가에 대해서는 그의 예술적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품의 형식상, 내용상의 미점(美點)과 지점(知點)을 판단하며, 미적 가치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창작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독려하고 대중에 대해서는 예술작품의 가치와 내용을 해설하여 작품의 의미와 예술성을 판별해 줌으로써 관객에게 미적 취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⁸⁾ 무용비평의 목적은 비평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작품의 이해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함이며, 비평가는 예술에 대한 깊은 경험과 사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판단하여 비평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비평가의 역할은 무용의 정체성을 근거로 이루어져야하며 무용예술의 참된 미적가치를 발견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용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⁹⁾

2. 온라인 매체의 특성

온라인 매체란 디지털화 되고 쌍방향적인 시스템을 갖춘 미디어로써, 멀티미디어화 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컴퓨터의 화상이나 소프트웨어 상에서 실현되는 시스템을 갖춘 미디어를 가리킨다. 새로운 매체로써 미디어의 발전은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적 토대가 되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¹⁰⁾ 온라인 매체는 카페, 블로그, 웹사이트 등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며, 전자게시판이나 채팅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각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교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상업적이거나 비 상업적이기도 하며, 공적 또는 사적인 다양한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관심의 공동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은 회원제를 기반으로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 등을 통해 서로의 정보와 의견을 나누며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모임의 속성에 따라 실제적인 만남을 병행하기도 하며 가상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¹¹⁾ 이 같은 온라인 공동체로서의 특징은 온라인 구성원의 욕구에 따라 커뮤니티의 목적과 성격이 달라지는데 이들 목적과 성격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 매체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정보나 서비스의 구입 및 교환,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는 목적, 취미나 전문분야와 같은 특정주제에 대해 전문지식을 교환하고 제공받는 것, 엔터테인먼트 등 환상과 탐험에 대한 욕구의 해소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처럼 거래, 관계, 관심, 환상 등

7) 전미나(2005), 무용평론 발전방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5-6.

8) 강신미(1990),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무용비평에 관한 고찰: 1980년대 한국의 무용비평을 중심으로, 부산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7.

9) 전지은(2008), 무용비평의 기능이 무용공연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4.

10) 박채리(2007),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채널 컨버전스시 Brand identity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 온라인 매체인 쇼퍼블 컨텐츠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6.

11) 이강수(2006), 온라인 팬 커뮤니티의 상호관계 요소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2.

으로 분류된다.¹²⁾

온라인 매체는 사이버 공간이 수동적 공간이 아닌 적극적인 정보 이용자를 생산해내고, 사용자는 자신이 전달할 정보의 내용과 전달시간, 전달의도, 전달대상에 대해 전면적인 권한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달받을 정보도 적극적으로 선별하여, 피전달자가 아니라 정보의 사용자이자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로 스스로 미디어의 내용과 형식을 창출하는 창조적 주체가 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미디어 사용자보다 강력한 권한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지닐 수 있고, 정보의 데이터들을 자신의 컴퓨터로 불러와 자의로 수정하고 편집하여 자신의 정보 역시 인터넷 상에 제공함으로써 제공자의 역할로서의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¹³⁾

따라서 일방적인 소통방식에 갇혀 있던 과거의 이용자와 달리, 온라인 사용자는 정보 제공인과 수취인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온라인 환경의 사용자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위치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온라인은 과거의 폐쇄적인 소통 체계들에 비해 월등하게 향상된 정보의 개방성을 만들어 냈으며, 이 개방성은 일상에서 항상 직접 체험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환경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정보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인, 본질적으로 1인 2역을 수행하는 양면적 이용자인 것이다.

온라인은 통합매체적인 특성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모든 미디어 유형을 포함하거나 그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장 발달한 매체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은 비동시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녹음이나 녹화라는 별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현재적 시점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 했던 기존의 매체와 달리 온라인의 축적성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필요한 뉴스나 정보에 대해 자유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¹⁴⁾

이러한 특성은 온라인 공간에 보관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접근하여 활용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한 정보의 재생산 또한 가능하게 한다. 보유된 정보는 검색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불러들여지고, 불러온 정보는 다른 도구들에 의해 얼마든지 편집 가능한 형태로 재생산 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온라인 공간에 저장되는 정보는 그 정보의 전달을 수행하는 자가 몇몇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의 개방성을 이용하는 이용자 스스로가 정보의 제공자 역할도 겸하고 있는 까닭에 거의 무한에 가까운 정보의 비축이 가능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군가 정보를 불러들이는 순간이 곧 그 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정보의 생산 시점이기도 하므로 정보를 매개로 하여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라는 수평적 연결을 극대화 한다. 인터넷의 사용자는 이러한 기능을 실현시켜주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사용자들끼리의 반복적이고 복합적인 연결을 이루어내고, 이 연결을 통해 일부의 사용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콘텐츠들이 보다 넓은 범위의 사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온라인상에서의 단순한 연결만으로도 수평적 네트워킹을 통해 누구나 쉽고 자유로운 정보의 획득이 가능할 수 있다.

12) 앞의 글, p.16, 참고.

13) 앞의 글, pp.20-22.

14) 고통우(2009), 인터넷 발달에 따른 한국영화문화 변화 연구: 온라인에서 영화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7.

3. 온라인 무용비평의 의미

1) 새로운 비평공간의 확보

무용비평을 위시한 예술비평의 출현시점부터 그것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오늘날 새로운 비평의 생산수단이자 비평이 저장되고 공유되는 공간으로 급부상한 개인 미디어인 블로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블로그는 인터넷 공간을 뜻하는 웹(Web)과 일지(Log)의 합성어인 웹로그를 어원으로 삼는 단어로써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기고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이의 글이나 정보들을 링크할 수 있는 개인 사이트를 가리킨다. 블로그의 초창기에는 일종의 일기와도 같은 형태에 지나지 않았었지만 기능이 발전하면서 심층적인 기사, 혹은 긴 칼럼에 이르기까지 그 형식의 다양성이 곧바로 갖추어진 개인미디어로 발전하였다. 웹은 매우 가변적인 특성을 가진 공간이며, 여기에 개인적인 취향까지 덧입혀진 블로그 역시 늘 변화하고 있는 까닭에 그 형식을 간단히 정의하는 것은 어려우나, 비교적 최근의 논의로 레트버그(Rettberg, 2008, 2009)¹⁵⁾는 블로그의 유형을 ‘개인 블로그(Personal blogs)’와 ‘필터 블로그(Filter blogs)’, ‘소재 중심의 블로그(Topic-driven blogs)’의 세 가지로 나눈다.

개인의 블로그는 개인적 삶을 주된 주제로 삼는 일기 형식의 블로그를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블로그는 독자와 강한 감정적 교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필터 블로그는 블로거 자신의 오프라인 생활을 기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블로그의 작성자가 웹에서 발견했거나 경험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주가 된다. 끝으로 소재 중심적 블로그란 필터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일상보다 다양한 소재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정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형식을 띠으로써 독자들에게 편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편집자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대부분의 블로그들은 개인이 운영하지만, 종종 여러 명의 기고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무용비평을 하는 블로거에 주목하는 이 글의 연구 대상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블로그 유형과 연결된다 할 수 있다. 이들 블로그들의 경우 특정 소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남과 함께 공유하기를 목적으로 글쓰기를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전문신문, 혹은 전문잡지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블로그를 통해 누구나 자신만의 신문과 잡지를 출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은 기존의 언론들이 독점하고 있던 담론의 생산기능에 대중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론 생산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블로그의 텍스트는 생산자의 개성과 취향이 보다 강력하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기존 매체와는 사뭇 다른 성향을 지닌다. 게다가 웹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력하게 발휘되어 보다 다감각 적이고 쾌락적인 성향을 띤다. 때문에 기존 언론이나 전통매체가 다루지 못한 하위문화나 대중문화의 주변장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친근한 이미지로 포장, 사적 취향의 대중화를 이뤄낼 수 있다.¹⁶⁾

이러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무용비평은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해당 텍스트에 대한 폭발적인 담론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블로그가 지닌 매체적속성과 ‘재 매개’ 기능이 지닌 문화

15) 레트버그(2008), 『블로깅(Blogging)』, 나은경(역)(서울: 한국언론재단, 2009).

16) 김지현(2011), 문화매개자로서 영화비평 블로거 연구: 웹 이후, 아마추어 비평의 발전과 영화비평 문화의 변화,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9-22.

적 담론 생산에서의 확장력”¹⁷⁾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획득은 물론 다양한 격차를 초월하는 의사소통의 경로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인터넷 공간은 공연예술분야에 있어서도 공연관람에 관한 정보나 관람 후기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공유하는 등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블로그를 이용한 글쓰기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네트워크 확장에 따라 특정 사회적, 문화적 현상과 접목했을 때 영향력을 갖기에 충분한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갖는다. 이미 영화나 뮤지컬 분야는 온라인 비평을 통해 새로운 소비자를 생산해내거나 비평과 비평의 수용을 통해 작품의 재생산과 재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온라인 공간은 전문가와 대중과의 담론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대중적 안목의 향상과 관람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온라인 비평이 갖는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이처럼 무용비평이 새로운 매체를 확보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글쓰기 공간의 확장이 아닌 정보의 생산과 획득, 커뮤니케이션의 생산이며 다양한 예술담론을 위한 대중적 영역으로의 확장인 것이다.

2) 아마추어 비평의 발달

‘아마추어’는 전문적인 영역을 기반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과는 구별된다. 온라인상에서는 각각의 분야에서 실제로 해당 분야의 직업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전문성은 전문가이거나 또는 전문가에 준하는 지식을 갖고 있기에 이들의 활동은 아마추어로 분류된다. 또한 전문화된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관객을 갖는다. 스테빈스(Stebins, 1992)¹⁸⁾는 이 점에 착안하여 단순한 자기만족의 활동을 뛰어넘어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하는 부류들을 취미를 넘어선 아마추어라고 주장하였다.¹⁹⁾

온라인 공간의 개방성은 아마추어들에게 충분한 활동의 장을 열어주었으며, ‘대중의 아마추어화’라고 일컬어질 만큼 자아 성취감이나 자기표현의 욕구 충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마추어들은 과거의 출판이 가지고 있었던 형식적 절차들을 붕괴시키고 이윤창출의 구조조차 무너뜨리며, 새로운 출판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다. 무용 비평 역시 이러한 매체 환경의 변화와 무관할 수 없으며 그 변화의 추이를 지켜볼만하다.

비평 문화 전반에 걸쳐 이미 기득권을 가졌던 전문가 집단은 아마추어에게 권위의 일부를 내어주게 됨으로써 비평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빼앗기게 되었다. 전문가를 대중과 분리해 주고 있었던 독점적인 지식들, 이를테면 학위와 폐쇄적인 비평 용어들은 매체의 발달로 인해 아마추어의 권력변동을 도모하였고 신문이나 잡지 등 전문성의 성벽이라 할 만 했던 비평 담론의 생산 현장 역시 아마추어의 참여를 허락하게 되었다. 이것은 비평을 독점하던 과거 전문가의 권력에 대응하는 문화 권력의 변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카데미와 같은 제도와 비평의 접근성 같은 현실적인 제약들은 과거의 무용 비평이 그야말로 전문가 집단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생산물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무용에서의 올바른 평가는 관객에게 무용작품에 대한 미적취미의 고양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 같은 “비평의 역할을 통해 각종 제도화의 근거로 삼아 무용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일련의 담론체계라고 할 수

17) 앞의 글, p.22.

18) Stebbins, R. A.(1992),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Buffalo: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 김지현(2011), p.26.

있다. 무용비평의 전문용어들은 사실상 비평과 대중의 관계에서 대중을 가로막는 수단²⁰⁾이자, 순수 예술과 고급 예술이라는 경계를 형성하는 매개적 결과물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비평 지면의 확장은 “비평이 지닌 권력은 전문가의 영원한 소유물이 될 수 없다”²¹⁾는 측면에서 무용예술에 관심 있는 블로거나 전문가에 준하는 아마추어 비평가들의 활동은 새로운 문화 권력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문지가 아닌 온라인 매체에서 무용비평 활동을 벌이고 있는 ‘아마추어’들은 스스로가 하나의 관객이자 동시에 무용공연의 전반적인 정보들을 전달하는 사회문화적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전문가에 준하는 비평언어의 사용과 온라인의 매체 속성을 활용하여 비평 생산을 통해 전문가의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미숙한 비평언어로 아마추어 비평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독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서 이러한 활동영역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갖는다.

3) 새로운 문화매개자로서의 의미

온라인 무용비평의 활동과 블로거들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 이를 통한 다양한 문화적 함의를 설명하기 위해 문화연구와 문화사회학이 발전시킨 것이 ‘매개자’의 개념이다. 문화사회학에서는 작가와 관객사이의 매개에 있어 작품 생산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인물로 ‘매개자’를 지목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전통적으로 문화사회학은 예술 비평가를 ‘매개하는 자의 예’로 해석했다. 이들 매개자로 인해 관객은 작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동시에 예술 전문가로서 비평가의 역할 또한 수행하였다. 비평가의 역할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예술적 양식의 발견과 고취를 도모하고 해석하는 ‘해석자’적 역할과 관객의 미적고양에 관여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 등이다.²²⁾

현재 온라인의 문화매개 활동의 주체는 문화매개자, 혹은 온라인의 문화매개 활동에 힘쓰는 능동적 온라인 이용자로 범주화 시킬 수 있다. ‘매개자’의 외연적 확장은 온라인으로 넓혀 ‘온라인 문화매개자’와 ‘온라인 문화매개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온라인 문화매개활동’은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창작자와 수용자 간 공중 기능의 상징적 중개 작업이며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문화의 번역, 변형, 혹은 생산 활동을 의미한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경제자본이나 상징자본을 획득하는 자들을 가리켜 ‘온라인 문화매개자’라 지칭한다.²³⁾

이를테면, 무용비평카페, 블로그, 그 밖의 무용관련 웹사이트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이와 같은 사이트를 활용해 무용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다루고 서로 네트워킹하며 새로운 온라인 문화매개자를 생산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비평 활동을 벌임으로써 문화매개의 주체자가 되기도 한다.

비평가는 전통적으로 전문비평가와 연구자, 대학교수 등 전문성을 갖춘 지식계급과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방송기자와 신문기자 등을 주체로 구성되어 활동되어져 왔다. 그러나 온라인의 등장으로 개인적이고 능동적인 취미적 활동가들이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집단 또는 개인과 네트워킹을 구성하면서 새로운 비평 창작자로서의 활동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문화매개자로서 온라인 문화에서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문화를 생산하고 창조하며 중개한다는 의미에서 온라인 문화매개자로 지칭될 수 있는 것

20) 앞의 글, p.28.

21) 앞의 글, p.29.

22) 앞의 글, p.35.

23) 앞의 글, p.47.

이다. 또한 이러한 비평 생산 활동을 통해 이들의 문화매개활동이 갖는 가능성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

III. 온라인 무용비평의 현황과 가능성 진단

1. 무용비평의 온라인화 현황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미디어를 벗어나기 어려워질 만큼 미디어의 발달이 구현되어왔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존의 인쇄물을 통한 잡지의 발행도 전자적 신호를 재료로 삼는 형태로 변모해 왔고,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WWW))이라는 온라인 공간의 특정 좌표를 통해 웹진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웹진은 ‘웹(Web)’과 ‘매거진(Magazine)’의 합성어로서 홈페이지 등과 같은 링크를 통해 사이트(Site)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주기적인 정보의 갱신을 합한 웹진(Webzine)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를 탄생시켰다.

상호 작용성이 뛰어난 웹진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장점은 멀티미디어의 기술적 요소와 하이퍼텍스트의 기능들을 잘 융합시켜 기존의 종이 잡지 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멀티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낸다. 오디오와 비디오, 그리고 활자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원하는 분량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화려하게 편집할 수 있게 해 준 웹진의 멀티미디어 환경은 온라인 공간의 일반 사용자들의 욕구에 잘 부합하는 특징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그 외에도 인쇄와 유통 등의 생산 과정의 단순화와 경량화, 뛰어난 사용자의 접근성 등은 웹진의 생산자나 이용자들 모두에게 경제적인 이익과 함께 정보의 검색과 색인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장점을 갖는다.²⁴⁾

이처럼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쇄매체가 홈페이지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²⁵⁾ 다양한 인쇄매체를 대부분이 고유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무용 전문지도 점차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잡지사의 웹사이트는 인터넷 잡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올드 미디어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진화단계에 있는 매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²⁶⁾

이 같은 매체의 변화에 따라 무용비평 전문지 또한 웹사이트를 갖추려는 노력이 있어왔으며,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용자들의 증가 추세에 따라 무용비평에 대한 관심 또한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따라서 이들 매체의 현황조사와 비교를 통해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무용비평 웹사이트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무용비평 전문지의 온라인화 현황

무용전문 월간지인 ‘월간 춤’은 1966년 발행을 시작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1976년 3월 창간호로부터 재 간행되었다. 웹진은 1966년부터 2009년 5월호까지만 ‘춤’지의 색인 목차들만을 엮어놓았다. 웹진의 카테고리 분류는 공연행사, 춤 계 소식, 관련 사이트, 공연 후기, 구인구직, 자유게시판, 자료보내기, 구

24) 강옥진(2009), 인쇄매체 잡지의 디지털 시대 적응 전략에 관한 연구: 패션잡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28-29.

25) 앞의 글, p.28.

26) 앞의 글, p.30.

독신청, 광고문의, 편집자에게, 춤 총목차색인, 춤 인명사전의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업데이트나 웹진의 관리는 월간지의 발행과 관계없이 대개는 연 단위로 게재되며, 그 내용은 직접적인 접근이 어렵다. 다만 그동안 발행되어온 간행물의 검색을 통해 간행물의 발간 호와 제목만을 검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자료의 직접적인 접근성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이는 전문자료로서의 폐쇄성을 웹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연 단위, 또는 보다 긴 간격을 통해 업데이트 된다”는 월간 춤의 인터뷰²⁷⁾내용과 같이 웹진에서 관리자의 게시물은 2013년 이후로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웹진의 운영방법이 매체의 성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운영의 문제를 안고서도 자유게시판은 2002년을 시작으로 총 2634개의 게시물이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었으며, 주로 전문정보와 소식을 나누는 곳으로 이용된다. 또한 온라인이라는 매체로서의 매체 특성이 부분적으로 결여되었으나, 2014년 최근까지 자유게시판만이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같은 현상은 월간 춤의 전문지로서의 대중성 확보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월간 객석’은 월간지로서 1984년 초판 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꾸준히 연재되고 있다. 객석의 웹사이트는 2007년에 개설되었으며, 크게 MAGAZINE과 공지사항, 정기구독, Clara House의 네 가지의 카테고리 분류되어 있다. 이 중 MAGAZINE이 본 웹사이트의 주요기능을 다루고 있으며, Cover story와 Classic music, Opera, Musical, Dance, News 및 life 등 총 10개로 세분화되어 있다. 무용부문의 자료는 2013년 1월호의 지면발행 기사를 시작으로 최근 5월까지 총 50개의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게시물 마다 의견을 적을 수 있는 글쓰기창이 있으나 내용이 전무하였다.

〈표 1〉 무용비평 전문지 ‘월간 춤’, ‘월간 객석’, ‘공연과 리뷰’의 온라인화 현황

월간지명	춤	객석	공연과 리뷰
항목			
최초 발행년도	1966년	1984년	1994년
웹사이트 개설년도	2002년	2007년	2007년
웹사이트 운영목적	간행물의 발행 호 검색과 저장, 문화소식제공	간행물의 저장과 양질의 공연예술정보를 제공	공연예술과 미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출판사 홍보
전문지 성격	월간지	월간지	계간지
소통형태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웹사이트 운영방법	년 단위 또는 5년 이내	잡지의 형식을 따름	계간지로서 잡지의 발행과 동일

27) 〈부록〉 인터뷰 참고.

Clara House는 다양한 예술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한 예술 강좌를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술의 접근에 대해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웹진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긍정적인 시도로 보여 진다. 또한 오랫동안 발간되어온 전문자료의 보관과 접근성은 무용 전공인들에게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앞서 아직은 사이트의 파급력이 부족하고 여전히 전문 인단만을 겨냥한 태도는 대중적인 측면에서 그 활용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자유게시판의 위치 또한 이 Clara House를 클릭해야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강좌를 수강하는 이에게만 주어지는 선택적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큰 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진다.

‘공연과 리뷰’는 두 잡지의 성격과 달리 계간지로서 공연예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원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고 있다. 공연과 리뷰는 현대미학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주로 무용과 연극, 영화, 미술과 같은 예술의 영역을 다뤘으며, 2004년, 2005년, 2006년 세 차례나 한국잡지협회의 ‘우수 잡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연극, 무용, 영화의 비평 활성화와 전문인단의 아카데미한 활동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1994년 공연과 리뷰의 발행이 시작되었다.

공연과 리뷰의 웹사이트는 회사소개, 도서안내, 공연과 리뷰, PAF's eye, 자유게시판, 편집자발언대의 총 6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 예술에 관한 주요정보를 다루는 게시판은 공연과 리뷰, PAF's eye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리뷰와 행사, 주요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리뷰의 게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개, 행사소식 또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개, 주요기사내용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1개로 웹사이트의 관리가 부진했다.

자유게시판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316개의 게시물이 올라왔으나, 142개를 제외하고는 출처와 내용이 없거나 불분명한 내용의 게시물로서 소통을 위한 글로 보기 어려웠다.

또한 ‘공연과 리뷰’가 계간지인 점과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웹사이트의 성격 상 자유게시판에서는 출판문의와 내용에 대한 소통만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온라인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기존 매체 형식이 웹사이트에도 적용된 것으로 아쉬운 정보력과 소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 조사를 통해 살펴본 바, 세 웹진 모두 전문지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비평가를 통해 수준 높고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지로서의 역사와 정통성은 아마추어 웹진과는 차별화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유게시판의 소통공간을 통해 그동안의 간행물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전문지의 온라인화 움직임을 통해 무용비평에 관한 전문자료를 개방하고 제공한다는 취지는 괄목할만하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매체의 성격과 웹진을 동일한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세 웹진 모두 자유게시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 또한 현저히 떨어져 소통의 매개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딘 정보의 생산과 소통에 대한 편의성 부재는 무용전문 웹진이 웹진으로서의 매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대중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아마추어 무용비평 웹진의 온라인 현황

온라인의 활용은 전문 집단뿐만 아니라 관계와 소통, 공통의 취미를 갖고 상황에 따라 정보의 거래가 필요한 모든 대상을 아우르는 하나의 공동체적 공간이다. 정보의 사용자는 언제든지 제공자로 변모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정보 습득에 의해 정보를 보충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다시 재생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형식으로 생성된 것이 바로 개인 웹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 웹사이트는

자신의 취미에 대한 주관을 온라인상의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튼튼히 하고 그러한 정보의 수집을 통해 개인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정보를 재생산해낸다. 이렇게 배출된 정보는 그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재창조되어지며, 취미를 넘어 전문적인 정보의 생산과 공유가 가능한 아마추어 집단을 의미한다.

다음은 아마추어 무용전문 웹진으로 분류되는 ‘춤추는 거미’의 현황이다.

〈표 2〉 아마추어 웹진 ‘춤추는 거미’ 현황

	년도	항목	춤추는 거미 (최대 게시물 조회수 4000회 이상)								
			거미 뉴스	거미 토크	춤나누기 프리뷰	춤나누기 리뷰	거미 인터뷰	거미의 눈	춤추는 세계	문화 클릭	거미 광장
2004	게시물수	0	7	0	6	13	6	0	0	61	
	댓글수	0	18	0	5	19	0	0	0	37	
2005	게시물수	53	22	0	18	10	22	0	2	116	
	댓글수	0	20	0	11	13	0	0	0	26	
2006	게시물수	128	9	0	32	9	22	4	9	187	
	댓글수	1	7	0	31	2	0	5	3	14	
2007	게시물수	114	11	0	28	9	29	14	9	205	
	댓글수	0	5	0	26	0	0	4	2	2	
2008	게시물수	151	1	0	29	7	12	8	9	176	
	댓글수	0	1	0	28	0	0	0	0	6	
2009	게시물수	103	9	0	26	7	14	3	15	198	
	댓글수	0	1	0	9	0	1	0	0	2	
2010	게시물수	143	6	0	12	6	8	7	3	189	
	댓글수	0	0	0	1	0	0	0	0	0	
2011	게시물수	76	2	0	11	7	8	6	6	82	
	댓글수	0	0	0	0	0	0	0	0	0	
2012	게시물수	36	2	7	11	3	5	5	4	85	
	댓글수	0	1	0	1	1	0	1	1	4	
2013	게시물수	19	0	28	7	1	2	2	7	72	
	댓글수	0	0	0	0	0	0	0	0	0	
2014	게시물수	19	0	23	3	0	15	0	6	19	
	댓글수	0	0	0	0	0	0	0	0	0	

‘춤추는 거미’는 2004년에 오픈되었으며 9월 22일 첫 게시물의 등록을 시작으로 총 9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 중 ‘거미광장’은 자유게시판과 같은 속성으로 소통의 장으로써 이용되었고, 나머지 여섯 개의 카테고리에서 무용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카테고리 명은 거미뉴스, 거미토크, 춤 나누기 프리뷰, 춤 나누기 리뷰, 거미 인터뷰, 거미의 눈, 춤추는 세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까지

도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아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유게시판 성격의 거미 광장은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많은 게시물이 게재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드물게 리뷰에 대한 코멘트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거미 광장’과 같은 게시판 외에도 댓글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정보의 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무용관련 전문기관에서도 이 카페의 자유게시판을 정보제공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무용계 소식이라든지 구인구직의 내용, 콩쿨 및 공연 홍보 등 더 많은 전문소식을 받아 볼 수 있다. 이 같은 온라인 비평매체는 일반인에게는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한 정보를 체득하게 하고, 무용인들에게는 무용 활동을 위한 다양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전문정보의 접근은 단순한 독자를 넘어서 잠재고객 및 잠재된 전공자를 양산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의 웹 안에서 다양한 카테고리를 실시간으로 이동하며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는다라는 점에서 제한 된 독자층을 보유하고있던 무용전문지와는 달리 수용할 수 있는 독자의 범위가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웹진은 인터넷지의 양성을 도모하고, 웹진의 소속기자들이 게시물을 게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리뷰구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견해나 공연에 관한 간략한 감상과 정보의 공유 등 소통이 원활한 편으로, 게시물의 조회도 꾸준하며 조회 수 역시 적게는 100회에서 많게는 4000회 이상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무용계의 국내외 소식과 더불어 ‘문화 클릭’이라는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계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여 무용 이외에도 다양한 예술분야의 소식을 알린다. 이 같은 독자의 형성과 소통의 구조는 기존의 매체형식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효과를 획득하게 하고, 무용비평과 무용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점을 갖는다. 또한 기존의 전문지가 갖는 전문성이 다소 결여된다 하더라도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글쓰기와 소통구조, 실시간 운영체제를 통해 빠른 정보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용예술과 무용비평에 대한 관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춤추는 거미는 비전문인과의 소통을 취지로 개설된 만큼 그 역할에 충실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 스테이지’는 웹진과 함께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일 1000~1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방문한다. 웹진은 댄스, 뮤지컬, 연극, 오피니언, 컬처, 공연장, 라이프, 포토뉴스의 8개 항목으로 분류되며, 예술전반과 인물, 시사칼럼 등 다양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각각의 카테고리는 해당 분야에 대해 세분화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업데이트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최근까지 꾸준하게 업데이트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는 뉴 스테이지의 웹진 항목 중 무용에 관련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개인 블로그와 함께 살펴보았다. 뉴 스테이지와 개인 블로그의 최초 게시물은 2007년으로 동일하며, 웹진과 개인 블로그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무용비평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덧붙여 ‘춤추는 거미’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수반한 인턴채용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게 비평지면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개인 블로그라는 특성 때문에 관리자의 운영에 있어 다소 편향된 업데이트 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나, 양자 간 내용적인 측면에서 전문지식의 격차는 없었다. 또한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적 성격의 웹이 소통과 접근성의 측면에서 미루어 볼 때 더 대중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뉴 스테이지 웹진의 구성과 실시간 업데이트는 매거진의 성격에 충실하였고, 블로그 또한 웹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소통의 측면을 보충하고 두 사이트의 기능을 상호보완하며 온라인 매체로서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표3〉 아마추어 웹진 ‘뉴 스테이지’ 현황

년도	항목	뉴스테이지 웹사이트				뉴스테이지 블로그				
		뉴스	인터뷰	리뷰	포토 뉴스	daily 공연소식	공연 포토 현장스케치	함께 본 공연후기	공연리뷰 오피니언	뉴스테이지가 만난 사람들
2007	게시물수	36	1	23	53	28	99	0	43	27
	댓글수	0	0	0	0	8	13	0	1	20
2008	게시물수	315	116	24	143	558	937	0	207	231
	댓글수	0	0	0	0	93	243	0	69	114
2009	게시물수	365	80	29	73	165	262	0	57	46
	댓글수	0	3	0	0	29	42	0	5	15
2010	게시물수	195	40	17	20	20	14	0	7	20
	댓글수	0	0	0	0	5	1	0	2	3
2011	게시물수	107	32	4	15	166	43	0	46	67
	댓글수	0	0	0	0	101	20	0	6	52
2012	게시물수	134	29	2	20	261	115	0	15	115
	댓글수	0	0	0	0	150	31	0	3	19
2013	게시물수	78	19	13	28	105	52	3	33	71
	댓글수	0	0	0	0	46	48	14	16	21
2014	게시물수	17	0	1	2	115	68	3	39	16
	댓글수	0	0	0	0	84	44	4	15	18

3) 무용전문 웹진과 아마추어 웹진의 현황비교

월간 춤, 월간 객석, 공연과 리뷰는 전문적인 특성을 갖는 대표적인 잡지로서 전문 무용인들에게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무용계와 함께 오랜 역사를 지내온 잡지로서 무용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온라인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이제는 이러한 ‘전문적인 정보’들은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라도 그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그러므로 무용을 전공으로 해온 전문 무용인들이 아니더라도 무용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들은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비단 무용전문 잡지나 웹진뿐만 아니라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무용전문지의 온라인화는 전문적인 정보라는 강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관객과 독자의 다양한 소통을 이루어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는 기존매체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운영에 있어 일방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용전문지가 접근성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충족한다면 무용전반에 아울러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무용전문 웹사이트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무용전문 웹진과 아마추어 웹진의 현황비교

구분 항목	전문가			아마추어		
	춤	객석	공연과 리뷰	춤추는 거미	뉴스테이지 웹진	뉴스테이지 블로그
웹진개설일	2002년	2007년	2007년	2004년	2007년	2007년
개설목적	간행물의 발행 호 검색과 저장, 문화소식제공	간행물의 저장과 양질의 공연예술정보 제공	공연예술과 미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출판사 홍보	비전문인들과의 소통 및 춤의 활성화 도모	인터넷자 양성 및 문화소통	다양한 문화와의 소통
업데이트주기	1년~5년사이	월 단위	계절 단위	매시간 업데이트체제	매시간 업데이트체제	매시간 또는 일주일 이내
소통방법	자유게시판	댓글	자유게시판	거미광장	뉴스테이지 블로그	댓글
소통유무	유	무	유	유	유	유
자체 커뮤니티	없음	clara house	없음	없음	블로그	없음

〈표 4〉의 무용전문 웹진과 아마추어 웹진의 현황비교를 살펴보면 두 가지 형태의 웹진 모두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개설되었다. 또한 대부분 소통의 통로로서 특정 게시판을 지정하거나 게시물 하단의 댓글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웹진의 개설 일을 살펴보면 전문지의 온라인화 시도가 이들 6개 웹진 중 2002년 가장 먼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2004년 춤추는 거미, 2007년 객석, 공연과 리뷰, 뉴 스테이지 웹진과 블로그가 뒤를 이으면서 무용비평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비평영역을 확장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지의 웹진 개설 목적과 관리 방법이 기존 매체의 방식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왔다는 점은, 매체의 변화에 따른 문화 권력의 변동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반면에 아마추어 웹진은 그 시작이 온라인 매체인 만큼 다양성과 소통, 대중성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 되고 있었으며, 매시간 업데이트 체제를 통해 접근성을 활발하게 하고 간행되는 기존 매체의 형식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다.

그동안 무용전문지의 전문 웹진들은 전문적인 웹사이트라는 호명만을 유지한 채 아마추어 비평가들에게 그 영역을 양분하면서 더 이상의 독자성을 개발하지 못했다. 온라인 매체의 영역은 그 정보의 개방으로 인해 더 이상 전문성의 기준을 논할 수 없고, 전문가 또는 그에 준하는 집단의 온라인 활동은 전문성의 의미를 더욱 무색하게 하였다. 따라서 무용전문 웹진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 전문성 이외의 그 무엇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전문지와 아마추어 웹진의 비교는 이러한 의미를 잘 나타내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월간 객석의 자체커뮤니티 운영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신뢰도 높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적인 특수성을 개발하려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시도가 할 수 있다.

온라인상의 개인 웹사이트들은 하나의 목적과 주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문화된 자료를 수집하고 구성하고 있다. 즉, 하나의 전문가적 입장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정보의 물결 속에서 정보의 전달과 교류의 수단으로써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접근성과 빠른 정보력, 더불어 잡지 등의 간행물에 비교해볼 때 정보를 얻는데 비

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은 온라인 매체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일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무용계의 전반을 아우르고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전문 무용비평 웹진의 생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과 형태는 기존의 제한된 독자층이 아닌 온라인상의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에게 무용에 관한 정보와 관심에 기여하고, 비평영역의 확장과 발전을 통해 무용공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온라인 무용비평의 가능성

매체의 다변화 양상에 따라 비평의 영역은 그 활동범위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개인과 집단은 온라인 매체의 발생을 통해 과거와 달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문화 활동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아가고 있다. 하나의 취미를 통해 현실생활에서의 직업을 보유한 채 사회적, 문화적 영역의 생산과 수용을 동시에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 매체 영역에서 발생된 새로운 문화매개자적 역할에 해당된다. 정보의 생산과 수용, 그리고 공유는 무용비평 뿐만 아니라 무용에 관련한 모든 정보의 활용과 운용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무용비평 영역을 다루는 웹사이트는 과거의 폐쇄적이고 독립적이며 전문화된 비평가 집단의 성격에서 벗어나, 폐쇄성이 낮고 대중적이며 집단화된 아마추어 집단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성격은 불특정 다수의 아마추어, 혹은 전문가에 준하는 집단에 의해 다양한 비평형식을 접하고 공유하며, 새로운 정보의 생산을 통해 좀 더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소통을 이루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현대화된 사회문화적 구조에서 대중과의 소통은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적극적인 사회문화적 참여이자 영역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며 전문적이고 더욱 객관적 측면의 정보를 생산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온라인 무용비평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대중과의 소통 가능성'이다.

무용비평은 그동안 생산주체가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형태를 취해 왔다. 즉 아카데미 형태의 지식인층의 전문적 비평가를 통해 글쓰기가 제한되었으며, 그 형식마저 폐쇄적이고 독자적인 태도를 갖는다. 어려운 비평용어와 전문화되고 객관화된 관점의 비평형식은 이러한 태도를 반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문화가 발달하면서 비단, 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순수예술과 다소 접근 가능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정보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제 무용비평의 활동영역은 전문적인 문화매개자였던 비평가 집단을 포함하여, 다양한 생산주체와 새로운 매체를 통해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은 매체의 특성상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활동영역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존매체가 갖는 일방적인 형태의 정보생산에서 쌍방향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것은 정보의 생산자가 동시에 정보의 수용자이자 정보의 재생산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확보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온라인이 불특정 다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용비평을 접하는 독자와 무용 관객, 넓게는 대중과의 소통을 의미한다. 즉, 무용을 전공한 제한된 독자층에게만 입혀져 왔던 무용비평은 독자층의 개방을 통해 무용공연 뿐만 아니라 무용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을 활용하는 개인집단의 웹사이트 비평 활동을 통해 하위문화에 대한 주목을 이끌어내어 비평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가능

성을 함의하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비평매체로서의 가능성'이다.

무용비평은 그동안 지면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관객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무용비평 역시 이를 충족하기 위해 발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역으로 활동하는 비평가의 숫자가 8명 남짓이라는 것과 그나마도 생산되는 평론의 수 또한 부족하다는 것은 무용 공연의 관객들이 공연 관람 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기능적 평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기록으로서의 평론조차 얻지 못하고 사장되는 공연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비평가들의 활동부진과 활동할 수 있는 지면의 제약이 만들어 낸 부정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의 비평계가 풀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매체의 발달과 변화는 기존의 단방향적인 미디어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언론의 보도특성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매체환경의 구조변화는 언론 메커니즘의 작동 기제 때문이었다. 기사의 형식 변화는 멀티미디어에 힘입어 보다 현장성 있는 시각적 콘텐츠를 수반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저널리즘의 전반에 걸쳐 거시적 관점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기사쓰기의 양식과 보도 양식의 측면에서 두드러졌다.²⁸⁾

즉 텍스트의 변화로 인해 양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용비평의 새로운 지면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비평 양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의 지면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분량의 제한이 없어 인터넷 텍스트의 특성상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전문가 이외의 총칭 '아마추어', 또는 전문가에 준하는 활동을 벌이는 이들에 의해 새로운 글쓰기 양식이 형성되고 다양한 형태의 웹사이트를 통한 지면의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이들의 활동은 새로운 비평가의 생산을 통해 새로운 수용자를 형성케 하여 나아가 새로운 문화계층으로서 비평 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로서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무용에 관련한 정보에 대해 접근성과 정보력의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매체의 현대화 보급에 따라 개인에게 필수적으로 등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용이 대중적 접근과도 가까워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 전문지를 통해 양산되어온 무용비평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평도 문화매개자적 측면에서 하나의 새로운 비평매체로서 가능성을 제시해볼 수 있다.

셋째, '무용공연 활성화의 주역으로서의 가능성'이다.

온라인 매체는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정보의 교환이나 실제적인 기술 지원에 이르기까지 정보의 불균형 감소와 신뢰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마케팅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제작된 광고 작업에 있어서도 분량이나 내용의 변경 및 수정 등 그 방법이 용이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매체에서의 마케팅은 마케터와 소비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근거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여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런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²⁹⁾

28) 박진희(2009), 매체특성과 기사 양식의 관계 연구: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매체 대통령 기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5-6.

이처럼 온라인 매체의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접근성은 다양한 수용자를 생산해 냈고 동시에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 생산과 수용의 질을 향상하여 새로운 문화매개자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무용 비평의 새지면 확장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무용에 관한 정보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온라인 웹사이트를 이용한 매니아 층의 활동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들의 위치가 상승하여 비평의 영역에 대한 독점이 허물어지게 되었다. 사실상 비평과 대중의 관계에서 비평은 대중의 접근을 차단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매체의 특성 활용은 대중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무용계와 대중의 문화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무용에의 관심을 도모하며 나아가 마케팅적 측면에서 무용공연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무용비평은 전문적인 평가를 내리기 이전에 다양한 공연에 대한 리뷰와 해석,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기록된 공연에 대해 간접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온라인 매체에서 무용비평과 무용공연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대중의 접근가능성을 확장시켜 무용공연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무용비평은 그동안 전문성을 검증받은 무용비평가에 의해 쓰여 왔으며, 무용전공자들에게 읽혀져 왔다. 이 비평가 집단은 아카데미 형식의 제도화된 틀 안에서 지식인들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예술적 양식들을 새로이 발굴해내고 그 가치를 전도시켜 새로이 해석하는 ‘해석자’적 역할과 관객의 미적 ‘교육’에 관여하는 ‘교육자’적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의 지배계급으로서 사회문화적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집단의 특수성에 따라 다소 폐쇄적인 성격을 띤 집단이다. 그러나 예술비평의 출현시점부터 이것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의 발전은 비평 생산의 수단이자 공간으로서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변화해왔다.

초기 미디어의 발생을 시작으로 뉴미디어로서 온라인 매체의 발생은 타 장르뿐만 아니라 무용비평에 있어서도 새로운 비평공간으로써 이미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에 새로운 비평 매체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온라인 매체의 등장은 무용비평의 새로운 매체로서의 시사점과 다양한 무용비평 형식의 가변적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온라인 무용비평의 의미를 해석하고, 무용비평 매체로서 온라인 매체가 갖는 가능성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무용계와 무용비평의 발전에 있어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무용비평의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비평 영역으로서의 온라인 매체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무용전문 웹사이트와 아마추어 웹사이트로 구분하여 온라인 무용비평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온라인 매체의 특성은 다소 폐쇄적 성향의 무용비평에 있어 새로운 문화매개자적 형태를 구축하였으며, 따라서 온라인 문화매개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켜 새로운 문화매개자를

29) 김정렬(2010), 공연선택에 미치는 매체와 수용자의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0-11.

형성하였다. 또한 무용비평의 영역확대를 통해 비평생산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생산자의 개성과 취향이 강력하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비평 자체가 갖는 전문성과 어려운 비평용어는 비평가의 지배적 권위를 위한 경계로써 해석되어진다. 새로운 생산 주체와 그들의 활동은 기존의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소수의 취향이나 하위문화에도 주목하여 비평의 지평을 넓히고 대중의 접근을 수용하는 새로운 비평지면의 생산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무용비평은 새로운 비평영역의 확장을 통해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획득은 물론 다양한 격차를 초월하여 누구나 이용가능한 의사소통의 경로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비평 영역은 단지 매체로서의 영역확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비평문화로의 전환은 문화 권력의 변동이라 해석가능하다. 또한 무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아마추어들의 전문가적 수준의 비평 활동은 새로운 문화 권력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가 하나의 관객이자 동시에 무용의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사회문화적 매개자로서 의미 또한 갖는다. 비평가는 전통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지식계급과 메스미디어를 활용한 방송기와 신문기자 등을 주체로 해왔다면 이들은 새로운 문화매개자로서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비평가로서의 활동과 문화생산을 한다는 데서 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온라인 무용비평이 갖는 의미연구를 통해 온라인 무용비평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그 가능성을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무용비평에 있어 온라인 매체의 활용은 기존의 부족한 비평가수와 제한된 비평 지면의 새로운 비평영역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비평영역의 확대는 그 특성에 의해 단지 지면 영역의 확보뿐만 아니라 비평 주체와 수용자의 생산영역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온라인 비평은 문화매개자적 측면에서 새로운 무용비평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갖는다.

둘째, 온라인상에서 무용비평의 생산주체와 수용자가 다양화됨에 따라 무용비평을 수용하는 독자층은 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텍스트의 형식 또한 단 방향적 형태에서 상호교환 가능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이는 무용비평을 접하는 대중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비평문화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된다.

셋째, 전문성이라는 특수성아래 비평가 집단에 의해 작성되어왔던 무용비평은 온라인 무용비평이라는 새로운 영역확장을 통해 무용비평에의 접근성에 편의를 가져왔다. 그러나 온라인 무용비평의 비교현황에서 살펴본 바, 온라인상에서 무용비평 웹사이트의 운용에 있어서 전문성은 그 의미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전문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 웹사이트의 빠른 정보력과 편리한 접근성, 타인과의 공감과 소통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공감과 소통은 전문성에서 얻을 수 있는 공신력과는 다른 차원에서 '공공의 신뢰를 얻은' 새로운 공신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이라는 폭 넓은 매체 안에서 전문성의 의미는 대중과의 소통이 없다면 더 이상 큰 의미를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넷째, 온라인 매체의 발전은 기존의 인쇄물과 비교하여 인쇄비와 구독료 등의 비용적인 측면과, 다소 제한된 독자층을 유지해온 무용비평에 대해 편리한 접근성을 통해 다양한 독자층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접근성은 다양한 무용관객 및 잠재관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으며 나아가 무용공연에 대한 정보력은 무용공연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무용비평은 대중적 측면에서도 그 의의를 지닌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2. 제언

비평은 지면과 비평주체와 수용자가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미디어의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또한 비평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무용비평과 온라인 매체의 결합은 무용비평계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현황연구의 결과, 무용전문지의 온라인화는 아직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저널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즉 매체의 속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전문성’만을 앞세운 기존의 무용전문지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화된 무용비평지로서의 독자성을 개발하고 좀 더 적극적인 웹사이트의 관리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는 반면에 무용비평의 매체에 대한 수용은 아직까지도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존의 무용전문지의 온라인화 작업의 다양한 시도와 현존하는 무용 웹사이트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무용관객과 독자에 대해 다소 폐쇄적인 형태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겠으며,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무용공연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겠다. 또한 생산주체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가에 준하는 ‘아마추어’ 비평가들의 활동 영역과 개념을 정리하고 이들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은 새로운 무용비평의 매개자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생산주체자적 역할과 소비자적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생산과 소비 사이의 매개자로서 그 형태가 모호하다.

따라서 이들의 영역을 정의하고 확립하여 새로운 생산주체로서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여 새로운 비평가 양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매체의 영역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무용비평의 폭넓은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드리드 윌리엄스(2000). 『인류학과 인간의 움직임: 무용연구(ANTHROPOLOGY AND HUMAN MOVEMENT The Study of Dances)』, 신상미(역). 서울: 대한미디어. 2002.
- 레트버그 (2008). 『블로깅(Brogging)』, 나은경(역). 서울: 한국언론재단. 2009.
- 폴 헤르나디(1998). 『비평이란 무엇인가』, 최상규(역). 정문사. 1984.
- Stebbins, R. A.(1992).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Buffalo: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강신미(1990).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무용비평에 관한 고찰: 1980년대 한국의 무용비평을 중심으로. 부산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옥진(2009). 인쇄매체 잡지의 디지털 시대 적응 전략에 관한 연구: 패션잡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동우(2009). 인터넷 발달에 따른 한국영화문화 변화 연구: 온라인에서 영화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현(2011). 문화매개자로서 영화비평 블로거 연구: 웹 이후, 아마추어 비평의 발전과 영화비평 문화의 변화.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렬(2010). 공연선택에 미치는 매체와 수용자의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진희(2009). 매체특성과 기사 양식의 관계 연구: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매체 대통령 기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채리(2007).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채널 컨버전스시 Brand identity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 온라인 매체인 쇼핑몰 콘텐츠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강수(2006). 온라인 팬 커뮤니티의 상호관계 요소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선(2006). 온라인 무용비평이 영화 관람 의도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미나(2005). 무용평론 발전방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지은(2008). 무용비평의 기능이 무용공연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성진(2007). 온라인 비평이 뮤지컬 관람객의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승현(2012). 수용자 비평 이론을 통해 본 무용전문 웹진 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근수(2000). 평론가여, 그대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무용평론에 대한 견해. 『문화예술』. (2000년 4월호, 통권 249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김기태. 월간 객석((주)객석컴퍼니) 홈페이지. <<http://www.gaeksuk.com>, 2014. 4. 15>.
- 김정미. 춤추는 거미((주)질리언) 홈페이지. <www.dancingspider.co.kr, 2014. 4. 15>.

김태원. 공연과 리뷰(현대미학사) 홈페이지. <www.meehak.co.kr, 2014. 4. 15>.
뉴스테이지. 뉴스테이지 블로그. <<http://blog.naver.com/newstage21>, 2014. 4. 15>.
박민경. 월간 춤 홈페이지. <<http://www.choom.co.kr>, 2014. 4. 15>.
이수근. 뉴스테이지 홈페이지. <<http://www.newstage.co.kr>, 2014. 4. 15>.

논문투고일 2014. 06. 15
심사일 2014. 06. 21
심사완료일 2014. 07. 07

〈부록〉 인터뷰

1. 전문지와 웹사이트의 초기 발행일은 언제입니까?
2. 웹사이트의 개설목적은 무엇입니까?
3.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까?
4. 답변하시는 분의 직함과 성함을 부탁드립니다.

※ 월간 춤 인터뷰 (2014. 6. 15.)

- 1) 창간호는 1966년이며, 세부사항은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2) 간행물의 발행 호에 관한 검색을 통해 지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문화 정보를 신고 있습니다.
- 3) 지면의 내용을 1년에서 5년간으로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업데이트 하며, 사실상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은 불분명하여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4) 월간 춤 직원 조운경입니다.

※ 공연과 리뷰 인터뷰 (2014. 6. 4.)

- 1) 전문지는 1994년에 처음 발행되었고, 웹사이트는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개설되었습니다.(2007년으로 확인됨.)
- 2) 저희는 현대미학과 공연예술에 대한 정보를 주로 제공하며 출판사 자체에 대한 홍보의 목적이 있습니다.
- 3) 저희는 계간지이므로 웹진으로의 기능은 취약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업데이트의 간격이 계간지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쇄로 발행되는 계간지의 내용들로 시즌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 4) 공연과 리뷰 편집인 김원희입니다.

※ 월간 객석 인터뷰 (2014. 6. 4.)

- 1) 전문지의 발행은 1984년이며 웹사이트는 2007년에 개설되었습니다.
- 2) 내부적으로는 아카이브형식으로 그동안의 자료를 축적해오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양질의 공연 예술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3) 지면에 발행된 내용과 동일한 기사를 게재하나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으며,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보면 완벽한 웹진의 성격으로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 4) 월간 객석 무용부문 인턴기자 김태희입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and Possibilities of Online Dance Criticism

Jeon, Ji-Eun

Ph.D. Student in Departmen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t's enough that online media have implications as new media of dance criticism and variable aspects in a form of various dance criticism.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attempts to interpret the meaning of online dance criticism, grasp the possibility that online media have as dance critical media have the value of the research.

This study tries to review the meaning of online media as a new area by understanding the correct concept of dance criticism and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media.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possibility as new media of critical areas through the status of professional magazines' webzine operation, and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dance criticism through a status survey and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specialized webzine and the amateur webzine.

Keywords: review(평론), criticism(비평), dance review(무용평론), dance criticism(무용비평), online dance criticism(온라인 무용비평)